
방통위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 중국 방송통신 협력 강화 -

-
- ◆ 기 간 : 2017. 12. 13.(수) ~ 12. 16.(토), 3박 4일
 - ◆ 방문국가 : 중국 (베이징)
-

2017. 12.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세부 활동	2
1.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 참석	2
2.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3
3. 텐센트 방문	4
4. 화이 브라더스 방문	10
5. 공청단 제1서기 면담	14
6. 인민대학교 방문 및 부총장 면담	15
7. 인민대학교 신문학원 방문 및 교수진 면담	19
8. 칭화대학교 방문 및 교수진 면담	23
9. 중관촌 이노웨이 방문 및 면담	24
10. CJ 중국법인 방문 및 면담	27
III. 보도자료	30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행사 참석
- 중국 방송통신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2. 출장 국가 : 중국 (베이징)

3. 출장 기간 : '17년 12월 13일(수) ~ 12월 16일(토), 3박 4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 삼 석
2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장	장 봉 진
3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서기관)	권 희 수
4	운영지원과	비서관(행정사무관)	이 기 훈

※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훈 책임연구원 동행

5. 주요 활동

- 중국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류 확산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한중간 방송분야 학술·학생 교류 및 한중 산학협력 방안 논의
- 한류 콘텐츠 진출 현황 및 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경극 인형, 텐센트 방문 기념)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Ⅱ. 세부 활동

1.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 참석

□ 개요

- 일 시 : '16. 12. 13.(수) 12:00~13:00
- 장 소 : Sofitel Wanda Beijing Hotel (베이징)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이기훈 비서관

□ 주요 내용

-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 첫 번째 공식일정인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하고, 재중 동포 위로 및 격려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 기념 촬영 >



< 대통령님 연설 >

2.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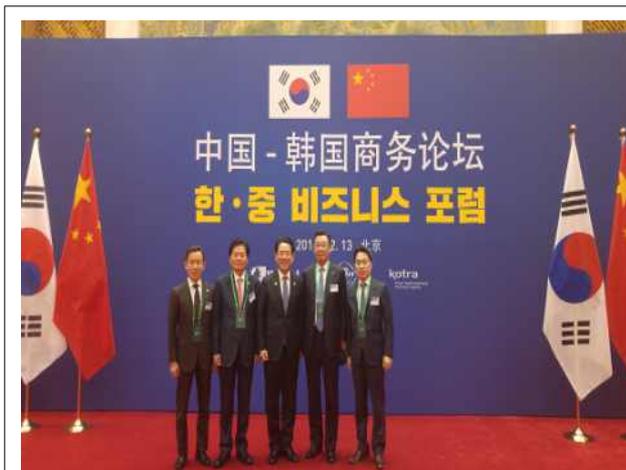
□ 개 요

- 일 시 : '16. 12. 13.(수) 15:00~16:30
- 장 소 : 다오위타위 (베이징)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이기훈 비서관

□ 주요 내용

-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 두 번째 공식일정인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하여 양국간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 기념 촬영 >



< 대통령님 연설 >

3. 텐센트 방문

□ 개 요

- 일 시 : '16. 12. 14.(목) 11:30~13:00
- 장 소 : 텐센트 회의실 (베이징)
- 면담자 : 제프 한 텐센트 펑귄 픽처스 부사장, 제시카 쿤 텐센트 코리아 대표

< 텐센트 개요 >

- 명 칭 : 텐센트 (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Tencent)
- 위 치 : 中国 深圳
- 설 립 일 : 1998년 11월 11일
- 영 향 력 : 중국에서 서비스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포털 세계 500대 브랜드 (2016년)
- 연 매 출 : 151,938억 위안 (2016)
- 종사자수 : 40,678명 ('17.8월)
- 사업영역 : 포털 사업자,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QQ 메신저 등
 - 남아공 언론재벌 나스퍼스의 자회사인 MIH TC 지주회사가 33.5%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임
 - 2015년 기준 자사의 메시지 앱 WeChat은 월간 사용자가 4억 5,000만 명 이상이며 개인 맞춤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QZone의 사용자는 6억 2,900만 명으로 집계됨
 - Tencent의 가치 평가는 2015년에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다수의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투자를 받고 있음

□ 주요 논의내용

【 텐센트 소개 】

- (텐센트) 텐센트 한국법인은 텐센트의 한국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게임투자회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의 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있음

- 텐센트 한국법인은 대부분의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텐센트는 좋은 드라마는 게임으로 상품화하고, 좋은 게임은 드라마로 상품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o (텐센트) 제프 한은 펙귄 픽처스의 모든 투자와 제작을 혼자 결정하고 있으며, 33개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등 매우 많은 업무를 담당
 - 현재 사무실은 작아서 18년말~19년에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신사옥은 층별 축구장 4~5개 크기의 10층 건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옥이 될 것임

【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등 협력방안 】

- o (방통위) 한국 기업과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o (텐센트) 태국의 경우 외국 드라마 쿼터가 있어서 외국 드라마보다는 태국 현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의 드라마를 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은 잘 구입하지 않는 편임
 -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드라마 공동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음
 - 아직까지 한중 합작으로 한국 작품들을 현지화하는 방식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임
 - 텐센트 입장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합작 작품이 없어서 고민이며, 성공작이 나오면 좋겠음
 - 통·번역만 잘 한다고 해서 작품이 현지화되는 것은 아니며, 대본 작업 등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관계가 좋아야 중국 시청자도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데 텐센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없음

- (방통위) 중국에서 태국 드라마가 인기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태국과 공동제작 등 방송콘텐츠 분야의 교류를 하고 있음
- (텐센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HBO, 타임워너와 같은 CP들과 협력하고 있음
 - 텐센트도 한국과 사업 강화를 희망하며, 양국간 관계가 정상화되어 빨리 시청자의 권리를 충족 요망
 - 텐센트 한국법인에는 수십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법인에서 본사에 아이템을 제안하면 본사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 다시 한국의 방송사, 제작사, 작가 등과 협의하는 방식임

【 한한령 해제 등 한중 콘텐츠 교류 활성화 】

- (방통위) 온라인은 가장 큰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고 요즘 콘텐츠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텐센트와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이 중요
 - 한국 정부도 조속히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 기업으로서 텐센트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방통위) 콘텐츠 규제 완화는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방송프로그램 전용 PP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해 규제하는 상황임
 - 우리도 텐센트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임
- (텐센트)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법인 대표에게 한국 현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방송, 영화, 연예 분야에서의 관계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기를 희망함

- (방통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양국 방문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하지만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지난 2~30년 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함
 - 대통령님 말씀처럼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되어야 함
- (방통위) 텐센트는 한국 방송, 게임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번에 방통위가 텐센트를 방문한다고 하니 한국 방송사들이 텐센트와의 빠른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어려움은 있겠지만 텐센트도 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광전총국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 바람
- (텐센트) 텐센트도 일찍부터 광전총국에 관계 정상화에 관한 제안을 해 왔으며, 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음
 - 양국간 공동제작, 한국내 회사 설립, YG 엔터테인먼트 및 CJ E&M 등과의 협력, 유명 작가와의 제휴 등을 추진해왔으나 현재는 사드 문제로 인하여 소통이 중단된 상황임
- (방통위) 오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 한중 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맞춰 텐센트도 미리 한국과의 협력 강화계획을 준비하였다가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계획을 발표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텐센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복원 등이 발표되면 내일이라도 한국 유명배우가 출연한 OOO 작품을 방송할 수 있음
 - 다만 중국 사회가 정적이고, 관료제 문화가 있으니 신중한 태도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방통위) 텐센트의 입장을 이해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민간업계 일선에서 적극적인 협력 방침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램임

- (텐센트)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며, 텐센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니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함

【 대통령님 방중 의미 및 양국 협력 증진 】

- (방통위) 대통령님께서 어제 3대 원칙, 8대 협력방향을 말씀하셨는데 3대 전략은 ▲한중 관계가 제도에 기반한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하고, ▲군사 문제와 별개로 경제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고, ▲사람 중심의 협력이 그 내용임
 - 특히 문대통령님의 사람중심의 경제와 시진핑 주석의 샤오캉 사회 건설 및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음
 - 또한 8대 협력방향 중 하나가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 발효 3년차인 '한중 FTA 보완'을 언급하셨음
 - 구체적으로 양국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동남아로 같이 나아가는 방법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임

- (텐센트) 양국 정상회담에서 많은 합의점을 도출되길 희망함

【 중국내 콘텐츠 규제 현황 】

- (방통위) 최근 중국내 한국 연예인의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 방송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중국내 규제가 존재하는지?
- (텐센트) 쿼터는 모든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여 1년에 300~500개로 제한되고, 한 국가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안 되는 규제가 있음

【 글로벌 전략 및 투자방안 】

- (방통위) 넷플릭스, 아마존은 영상 콘텐츠에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텐센트도 다른 글로벌 기업처럼 사업 강화 계획이 있는지?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면 가입자가 늘고, 수익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것임
- 넷플릭스의 경우 아직 수익이 많지는 않으나 자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함함
- o (텐센트) 텐센트도 여러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텐센트의 중국내 유료가입자가 3년 전 수십만명에서, 2년 전 600만명, 그리고 올해 9월말 기준 4,300만으로 증가했는데 넷플릭스의 전세계 유료 가입자는 4,000만명 정도임
- o (방통위) 온라인 분야는 매년 두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가 될 것임

< 회의 사진자료 >



< 회의 장면 1 >



< 회의 장면 2 >



< 회의 장면 3 >



< 기념 사진 >

4. 화이 브라더스 방문

□ 개 요

- 일 시 : '16. 12. 14.(목) 15:00~16:30
- 장 소 : 화이브라더스 회의실 (베이징)
- 면담자 : 친카이유 사장, 정춘리 부사장, 조안나 지 배급책임자, 아폴로 콩 선임배급부장, 시저 유 점장

< 화이브라더스 개요 >

- 명 칭 : 화이 브라더스(华谊兄弟传媒集团, Huayi Brothers Media Group)
- 위 치 : 北京市 朝阳区 新源南路 甲2号 华谊兄弟办公大楼
- 설 립 일 : 1994년 (왕중진, 왕중레이 형제에 의해 설립된 통합 민간 공연 단체)
- 영 향 력 : 제9회 전국 "상위 30개 문화 기업" 선정(2017)
- 연 매 출 : 3,910억 위안(2015)
- 종사자수 : 5,000여 명
- 사업영역 : 영화, TV 드라마, 음악,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등
- 사업 추진 현황
 - 2008. <맞짱> 제작(TvN 방영)
 - 2015. 9. 코스닥시장 상장, SBS미니시리즈 <가면>, MBC에브리원 <툰드라쇼>, 웹드라마 <프린스의 왕자> 제작
 - 2016. 1. (주)뷰티풀마인드코리아 설립, 자체 화장품 브랜드 '뷰티핏(BEAUTY : FIT)'을 개발해 출시
 - 현재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드라마OST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소속 배우에는 김윤석, 주원, 유해진, 주진모, 김상호, 이동휘, 강지환, 이시영, 임지연, 박혜수 등이 있음

□ 주요 논의내용

【 화이브라더스 소개 】

- (화이) 화이 브라더스의 왕중권, 왕중레이 회장은 광고회사에서 출발하여 영화, 엔터테인먼트, 방송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영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야가 영화인데, 화이는 20년전부터 영화를 제작해 왔으며 특히 탑클래스의 영화를 많이 제작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음. 연간 영화 제작 편수는 15~18편이며, 올해 연말에만 3~4편이 개봉될 것임
 - (글로벌 투자) 화이는 글로벌 투자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제작사 및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하고, 한국에서도 쇼박스, 심엔터테인먼트, HB엔터테인먼트 등 제작사, 배급사, 연예기획사 등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음
 - (드라마) 다양한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114편을 제작하였으며, 드라마가 제작되면 인터넷과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함. 한국과는 수지Q라는 드라마를 2018년 제작할 예정이며, 기존 드라마 중 피노키오,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등은 내년에 전국으로 CCTV,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 예정
- (화이) 정치적으로 제약 요소가 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오늘 방통위의 방문을 기쁘게 생각하며 방송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기대함

【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정상화 】

- (방통위) 중국 최대 제작·배급사인 화이 브라더스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줘서 감사함
 - 1층의 상영관과 4분짜리 제작물은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CJ E&M, CGV 등과 비슷한 느낌임
 - 한국에 화이 계열사가 1개뿐인 줄 알았는데 3개나 있고 연예기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의 경우 연예인이 40명이나 소속되어 있으며, 대부분 연기파 배우들임

- 안보 문제로 양국이 불편한 상황에서 화이브라더스코리아를 통해 계속 투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면 훨씬 많은 투자를 기대함

○ (화이) 화이도 기대하고 있음

【 한중 콘텐츠 기업간 협력 제고 방안 】

- (방통위) 최근 중국 드라마를 보는데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오전에 방문한 텐센트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 유통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중국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청자,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이 20여년 간 콘텐츠 교류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희망함
 -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인 CJ E&M이 동남아, 유럽, 중남미, 북미까지 진출 및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이브라더스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음
- (화이) 중국 최대의 민간 영화, 방송, 연예기획 사업자로서 특히 연예기획과 관련하여 한국과 많은 교류 협력이 있으며, 시나리오 집필 후 영화 제작과정, 특히 특수 효과 분야에 한국의 전문직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희망함
 - 영화, 방송 관련 문화 콘텐츠 타운을 전국에 약 20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첫 사업은 호남성 창사에 준비 중인데 한국의 참여를 기대함
- (방통위) 이번에 중국 출장을 통해 인터넷·뉴미디어 기업, 영화 제작·유통 기업을 방문하고, 교육 기관 관계자를 만나게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면 금방 급물살을 탈 것 같은 인상을 받음

- 콘텐츠 타운은 화이가 직접 조성하는 것인지? 각 성과 협력하여 조성하는 것인지?
- o (화이) 브랜드 가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현지 정부, 기업 등 3~4개가 같이 협력하여 조성하며, 준공된 후 콘텐츠를 제작·개발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을 줄 예정임
- o (방통위) 한국도 연간 100여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영화 촬영소,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해옴
 - 관광 산업과 연계가 잘 이뤄진 곳, 잘 안 이뤄진 곳이 있는데 관리가 중요하며, 나중에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임

< 방문 및 회의 사진자료 >



< 견학 장면 1 >



< 견학 장면 2 >



< 회의 장면 >



< 기념 사진 >

5. 공청단 제1서기 면담

□ 개 요

- 일 시 : '16. 12. 14.(목) 17:30~18:30
- 장 소 : 베이징 인터내셔널 호텔 (베이징)
- 면담자 : 푸젠방 공청단 제1서기 (장관급)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개요 >

- 명 칭 :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產主義青年團,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 창 단 일 : 1920년(중국사회주의청년단으로 창단)
- 단 원 수 : 78백만 명(2008)
- 사업영역 : 영화, TV 드라마, 음악,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등
- 설 명 : 중국 공산당 아래의 청년 군중조직으로, 줄여서 '공청단'이라고도 한다. 실천과정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20년 중국사회주의청년단으로 창단된 뒤 25년 공산주의청년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암흑기를 맞기도 했으나 1978년 제1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단원의 나이는 14~28세로 구성되어, 이들은 실천과정을 통해 중국적 사회주의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8세가 되면 간부직을 맡지 않는 한 공청단을 떠나야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권력 기반으로 최근 중국을 '탄파이(團派)' 시대라고도 한다. 탄파이는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출신을 뜻한다. 공청단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부총리,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왕자오귀(王兆國) 전인대 부위원장, 리루이환(李瑞環) 전 정협 주석 등이 있다.



□ 주요 내용

- 한한령 해제 등 한중간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 한중간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상대측 요청으로 비공개 회담)

6. 인민대학교 방문 및 부총장 면담

□ 개 요

- 일 시 : '16. 12. 15.(금) 10:00~10:30,
- 장 소 : 인민대학교 본관 (베이징)
- 면담자 : 두평 부총장, 리젠시 국제교류처 부처장, 장다묘오 국제교류처 과장

< 인민대학교 개요 >

□ 현황

- | | | |
|----------------|------------------------------|-------------------|
| ○ 종류 : 국립 | ○ 설립 : 1937년 | ○ 학부 수 : 14,223명 |
| ○ 총장 : 류웨이(刘伟) | ○ 표어 : 实事求是(실사구시) | ○ 대학원생 수 : 9,834명 |
| ○ 위치 : 베이징(北京) | ○ 규모 : 696,462m ² | ○ 교직원 수 : 1,759명 |

□ 학교 설명

- 중국인민대학(중국어 간체: 中国人民大学, 정체: 中國人民大學, 영어: Renmin University of China)은 베이징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을 위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임. 1937년 혁명 근거지인 연안(延安)에 간부의 육성을 위해 세운 산베이공학(陝北公學)을 출발로, 뒷날 허베이 성에서 화베이(華北) 연합대학, 베이팡(北方) 대학, 화베이 대학 등을 거쳐, 1950년 10월 3일, 베이징 정법학교와 화베이 인민혁명대학과 통합하여 베이징 시에서 현재의 중국인민대학으로 개교하였음. 철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중공당사, 과학사회주의 등 다양한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국가 교육부 소속의 종합대학으로 전국 일류대학 중 하나인 중국인민대학은 1937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17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 배출하였음
- 17개의 학원과 대학원, 8개 학부 그리고 13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전공분야로는 55개의 학사학위, 89개의 석사학위와 54개의 박사학위 수여권을 가지고 있음. 4개의 국가 중점 학과, 12개의 국가문과기초학과 인재배양과 과학연구기지를 보유하고 있음
- 국제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금까지 세계 80여개의 대학과 교류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여개 국가의 4,000여명의 유학생을 양성 배출함

□ 주요 논의내용

【 인민대학교 소개 】

- (인민대) 인민대학은 중국 내 인문사회과학 및 신문방송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며, 특히 신문방송 분야에는 유학생도 많음
- (방통위)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의 국적을 보면 예전에는 일본 유학생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데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해석됨
 - 방통위 출장단도 어제 텐센트, 화이브라더스의 고위급 관계자를 만났고, 오늘 오후에는 칭화대 교수를 만나지만 중국의 콘텐츠 산업이 많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교류, 산학 협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함
- (인민대) 인민대 신문학과는 인민대 내 다른 전공과 비교하더라도 우수한 전공이며, 민간 기업과도 활발하게 교류·협력하는 분야임
 - 인민대 인문사회 분야 전공간에는 서로 교차하여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인민대 내 9개 학과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신문학과도 그 가운데 하나임

【 한중간 방송분야 학술·학생 교류 】

- (방통위) 인민대 신문학원은 중국 신문방송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어제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래 발전 관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이 됨
 - 부총장님께서 방송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이 분야 관계자들에게 그 필요성 등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함

- (인민대) 양국이 학과 교육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해왔으며, 유학생뿐만 아니라 학자 등의 교류를 통해 양국이 발전, 학과 학술에서 공동 발전을 이뤄왔음
 - 대학교간 교류 활동에 인민대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인민대 각 학원에서 한국의 교수를 초청하여 영어, 중국어로 수업을 하며 이번 여름방학 때도 한국에서 많은 교수가 다녀갔음
 - 부총장 본인도 한국에 10번 정도 다녀갔는데 한국의 지인들과 WeChat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한중간 학술교류 활동이 있으면 인민대도 초대해주기 바람
- (방통위) 지난 1년간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학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중국 관계자도 관련 행사에 초대하겠음
- (인민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10명 정도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분들이 한중 교류 및 학술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음
- (방통위) 중국의 우수한 인재를 석박사 과정에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의 많은 대학교 국제교류협력처장님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책연구기관 취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 한중 콘텐츠 교류 활성화 】

- (방통위) 한국의 경우 외국 채널에 대해 대부분 콘텐츠 규제를 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CCTV, 중화TV 등 영화채널 및 중국관련 여러 채널이 특별한 규제없이 방송되고 있음
- (인민대) 중국에서는 TV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매체도 많이 변화
- (방통위) 한국은 인터넷 및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까지 양국간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인민대) 신문학과에 가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더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며, 오늘 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국의 방송분야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함
- (방통위) 인민대 교훈이 '실사구시'던데 한국에서도 의미있는 사자성어임. 실사구시 측면에서 양국간 학술, 학생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노인학 분야에서 정보격차도 중요한 주제이나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 결과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기 바람

< 회의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1 >



< 면담 장면 2 >



< 면담 장면 3 >



< 기념 사진 >

7. 인민대학교 신문학원 방문 및 교수진 면담

□ 개 요

- 일 시 : '16. 12. 15.(금) 10:30~11:30
- 장 소 : 인민대학교 신문학원 (베이징)
- 면담자 : 장후이평 부학원장, 장디 학원장보, 메이안 조교수, 종신 교수

□ 주요 논의내용

【 인민대학교 신문학원 소개 】

- (방통위) 본인도 수년간 한국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현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오늘 인민대 신문학원 견학은 매우 인상 깊음
- (인민대) 메이안 교수는 프레스센터를 관리하고 CCTV에서 8년 동안 뉴스 분야에서 근무하였음, 장디 교수는 학원장보로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았고, 종신 교수는 국제협력을 담당
 - 1924년 연경대 신문학과가 모태로서 1955년 학교 이름이 인민대로 변경되었으며, 인민대 신문학원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학부에는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방송, 광고 등 4개의 전공이 있고, 석사 과정에는 저널리즘, 국제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방송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제 등 5개의 전공이 있으며, 박사 과정에는 저널리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미디어경제, 커뮤니케이션 등 4개의 전공이 있으며, 총 150명의 학생이 있음
 -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미디어의 융합 현상 때문에 2011년부터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미디어 전체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중간 방송분야 학술·학생 교류 】

- (방통위)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하였고, 매체별로 보면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의 비중이 줄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맞춰 학교에서도 교육 시스템을 바뀌고 있으며, 산학 협력을 중시하여 학교에서 인재 양성도 하고 있음
 - 이번 중국 출장을 통해 중국이 인터넷 및 온라인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느꼈으며,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음
 - 한국은 이동통신, 5G 등 네트워크 구축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발전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국도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5G 투자에 적극적인 만큼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어느 나라나 그 분야의 인재가 자원이며, 학생, 교수님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 관계 발전을 희망함
- (인민대) 장후이핑 교수는 산학협력 관련하여 2015년부터 중국 유명 광고 기업의 지원을 유치해 옴
 - 지난 수년간 10억 위안의 지원을 유치하였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여 매년 학생 30명을 중점 선발하여 양성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강사진을 배출할 계획임
 - 또한 4학년 학생들을 6개월 동안 외국 유명 대학에 연수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작년 제1기 학생들은 1기는 미국 콜롬비아, UCLA 등에 연수를 다녀왔으며, 기술력, 창의성, 리더쉽 등 이 3가지를 중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기업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어떠한 대가도 없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도 없음
 - 인민대 신문학원은 학생과 교수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 요청바람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

- (방통위)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내 학교, 학술단체, 연구단체 등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한국 교수님들을 인민대에서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도 기대가 됨
 - 매년 신문학원에서 강의하는 한국 교수님의 현황은 어떠한지?
 - 시진핑 주석이 샤오강 사회, 아름다운 중국, 인민이 잘사는 국가를 이야기 했는데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신문학원 차원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 (인민대) 인민대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념을 지녀왔으며, 기술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발휘하였음
 - 예를 들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콘텐츠와 접목시키고, 중국내 사회 이슈와 관련된 과제물을 내주고, 위탁 공공기관에 학생들을 배정함으로써 사회에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
 - 3학년까지 신문학원 차원에서 홍보하고, 4학년 때는 기업 등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사회에 전파함
 - 방학 때 학생들이 전국 마을로 나가 사회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국가 통계자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국가발전에 활용됨
 - 한국에서도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함. 당 중앙에서 국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 일반 국민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19대 당대회 정신을 잘 전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함
 - 따라서 인민대 등 기관들이 적극 참여하여 당의 방침 등을 교육하고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도 조사도 함
 - AI의 경우 제품 및 디자인 기업과 협력, 전파 연구 등을 펼칠 예정이나 신기술이 등장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협력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 현재 개설중인 과목으로는 미래전파 할당운영이 있으며 다음 학기에는 더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인민대의 정보학원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및 AI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연구 예정이며, 중국과학원, CCTV, 프로그램 제작사, 인민대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AI 총서를 마련할 예정임
- o (방통위) 인민대가 기술적 트렌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길 희망함. 시진핑 주석이 항저우 인터넷 대회 축사를 통해 개방, 공유를 강조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몇 년전부터 추진해 온 정부 3.0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함

< 견학 및 회의 사진자료 >



< 견학 장면 1 >



< 견학 장면 2 >



< 회의 장면 >



< 기념 사진 >

8. 칭화대학교 방문 및 교수진 면담

□ 개요

- 일 시 : '16. 12. 15.(금) 12:30~14:00
- 장 소 : 칭화대학교 (베이징)
- 면담자 : 왕종징 부학장

< 인민대학교 개요 >

□ 현황

- | | | |
|---------------------------------|---|--------------------|
| ○ 종류 : 국립 | ○ 설립 : 1911년 | ○ 학부 수 : 14,943명 |
| ○ 총장 : 추용(邱勇) | ○ 표어 : 自强不息, 厚德載物
(자강불식, 후덕재물) | ○ 대학원생 수 : 22,697명 |
| ○ 규모 : 392만m ² (캠퍼스) | ○ 조직 : 학원(대학) 20개, 계열
(학과) 54개, 학부전공 75개 | ○ 교직원 수 : 13,670명 |

□ 학교 설명

- 칭화대학은 앞의 교명만 따서 "칭화(淸華)"라고도 불리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임. 중국 공산당 당중앙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추천과 협의를 통해 학교 당서기와 교장을 직접 임명/해임함. 중국의 MIT라고도 불리며 칭화대의 공학계열은 중국 자타공인 No.1이자 미국 하버드·예일, 스위스 ETH Zurich,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와 필적할 만큼 세계 TOP 10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임. 2016년 U.S. News 글로벌 대학교 순위에는 공정(Engineering)학부가 세계 1등의 영예를 얻었으며, 이외에도 인문학부·상경계열·미술계열 등도 중국 일류대학답게 유명함
- 이 대학 출신의 유명인사로 중국의 현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 1957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리정다오(李政道)와 양전닝(陽振寧), 우방귀(吳邦國)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전 국무원 총리 등이 있음

□ 주요 내용

- 한한령 해제 등 한중간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 한중간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상대측 요청으로 비공개 회담)

9. 중관촌 이노웨이 방문 및 면담

□ 개 요

- 일 시 : '16. 12. 15.(금) 14:30~16:30
- 장 소 : 중관촌 이노웨이 (베이징)
- 면담자 : 니에리샤 베이징 이노웨이 사장, 다니엘 베이징 3W Coffee 사장, 강정길 엘메카 대표, 김현수 VITRUV 사장, 고영화 KIC 센터장, 조천 KIC 과장, 왕엽천 KIC 과장, 류약 KIC 과장

< 중관촌 이노웨이 개요 >

- 중관촌(中関村)은 1988년 5월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 기술 개발구임. 공식 명칭은 '베이징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구(北京市新技术产业开发试验区)'
-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清華大學)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베이징 시 하이덴 구(海澱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km²임. 우다오커우(五道口)와 인접한 이 곳에는 한국 용산 전자 상가와 같은 하이룽따샤(海龍大廈)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자 상가와 백화점들이 늘어서 있음. 중관촌은 시험구 지정 이전부터 전자 시장이 있었던 관계로 총 기업의 50%가 컴퓨터 등 전자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생명 과학 신소재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임
-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위치해 인재 양성은 물론, 이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들이 상업화 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2011년 중관촌에는 레노보(lenovo), 파운더(Founder), 바이두(Baidu), 소후(Sohu) 그리고 넷퀸(NetQin)과 같은 중국 IT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IBM, AMD, 시만텍(Symantec),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HP 등의 다국적 IT기업 그리고 네슬레(Nestle), 중국제철 등 바이오 및 신소재산업과 관련된 1만9500여 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이 중 외국 기업은 2000개, 70%는 IT 관련 기업임
- 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가 시장 경제 전환을 시작하면서 중관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0년의 개발 끝에 200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오픈하였음. 중국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베이징대학을 비롯해 칭화대학과 인민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중국 창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음

□ 주요 논의내용

【 중관촌 이노웨이 소개 】

- (이노웨이) 베이징 혜정구 부동산개발회사 소유의 땅이 있고, 혜정구 정부와 함께 중관촌 기업대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점해 있는 창업 카페는 민간기업의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
 - 한국 스타트업도 많이 다녀갔는데, 방송통신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음

【 한국 학생 참여 등 창업자 지원 】

- (방통위) 한국에도 중관촌 이노웨이와 유사한 창업지원센터 등이 전국 곳곳에 있음. 한국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중 한국 대사관과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면 좋겠음
- (이노웨이) 한국의 KAIST 학생들도 중관촌 이노웨이에서 6개월 정도 활동한 적이 있음
- (방통위) 창업 원스톱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 (이노웨이) 중관촌 이노웨이 내 이노홀에 창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부 및 민간쪽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중국내 IT 스타트업 성장 배경 】

- (방통위) 중국의 IT 기업이 많이 성장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노웨이) 중국 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고 편당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인터넷 플러스라는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IT 및 인터넷에 관한 산업발전의 토양을 배양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은 탐다운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지원하며, 법률 제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 결국 청년이 창업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o (방통위)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되고 있음

< 견학 및 회의 사진자료 >



< 견학 장면 1 >



< 견학 장면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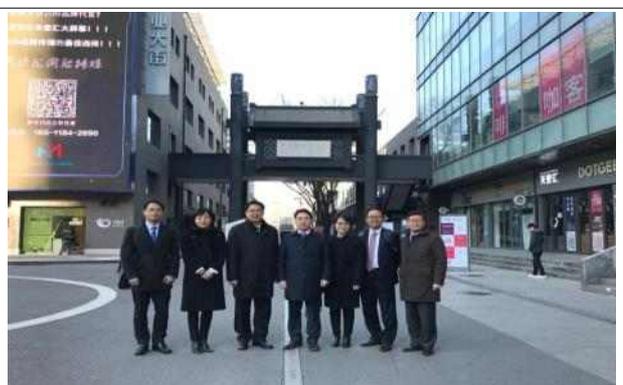
< 회의 장면 >



< 창업 카페 >



<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격려 >



< 기념 사진 >

10. CJ 중국법인 방문 및 면담

□ 개 요

- 일 시 : '16. 12. 15.(금) 17:30~18:30,
- 장 소 : CJ 중국법인 (베이징)
- 면담자 : 김장훈 CJ 중국법인 부사장, 고희석 대외협력단 상무, 김영찬 사업개발부 이사, 황오영 CJ E&M China 수석대표

< CJ 중국법인 개요 >

□ 개 요

- ('05년) 북경 대표처 설립, 중국 시장 진입
- ('11년) 현지 파트너사 협업 통한 영화·드라마 공동제작 본격화
- ('15년) 중국 법인(상하이허야 : 북경/상해) 설립
 -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사업분야 다각화

□ 주요 사업현황

- **(방송)** 판권 판매(포맷, 리메이크권 등) 및 현지 기획·개발·공동제작
 - (드라마) 상해천사천년 1, 2(후난위성, '인현왕후의 남자' 리메이크) 등
 - (예능) 꽃보다 할배(동방위성), 너의 목소리가 보여(장쑤위성) 등
- **(영화)** 판권 판매(리메이크권, 부가 판권) 및 현지 기획·개발
 - 20세여 다시 한번('수상한 그녀' 리메이크), 이별계약(한·중 합작, E&M 기획)
- **(공연)** 뮤지컬 현지 제작
 - JV 'CC Live' 설립·운영('16년)
 - 캣츠, 맘마미아, 쓰릴미, 지킬앤하이드 등(북경, 상해 등 24개 도시)
- **(애니메이션)** 플랫폼 판권 판매, 공동 제작 및 캐릭터 사업
 - 레인보우 루비 시즌1, 2 제작 및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완구/식품 등)
- **(음악)** 매니지먼트 및 컨벤션 사업(홍콩)
 - JV 'X-Time' 설립('16년) : 현지 공연형 아이돌 육성 및 매니지먼트 사업
 - 'MAMA' : 매년 12월 초 홍콩 개최
- **(광고)** 현지 디지털 광고대행사 JV 설립 추진 중 ('17년 末~'18년 初 예정)

□ 주요 논의내용

【 CJ 중국법인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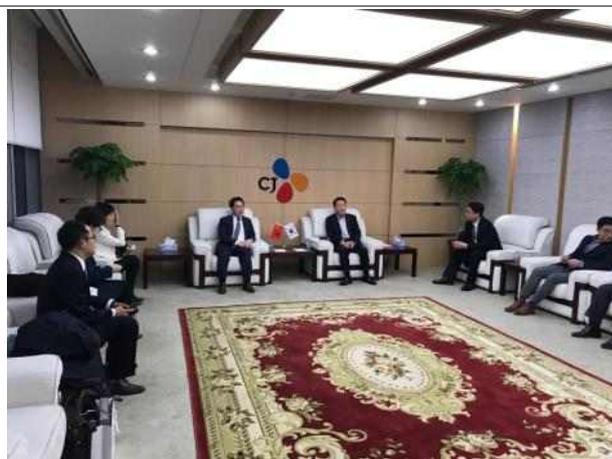
- (CJ) ▲식품, ▲제약(바이오), ▲E&M, ▲유통·물류·홈쇼핑·올리브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물류 부문에서는 장비 전문 운송업체를 인수하여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중국 최대 냉동냉장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백색가전 및 자동차 물류를 하고 있음
 - 전체 140여개 법인에 투자규모는 3조원 이하이며, 매출은 3조원 정도
 - 맘마미아, 캣츠를 중문으로 제작하였고, 지킬하이드는 올해 공연하였으며, 드라마도 공동제작하였으나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음
 - 대부분 B2B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드 배치의 영향이 적었지만 아쉬움은 있음

【 한중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 】

- (방통위) 대통령님 방중 이후, 양국 관계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난 사드 문제 이후 대중국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한류 확산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음
- (CJ) 한편으로 올해는 스스로 반성하는 한해가 되기도 하였으며, 경쟁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함
 - 한중 FTA 2단계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도 많이 논의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버릴 수 없는 시장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 (방통위) 어제 텐센트, 화이브라더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정부를 많이 의식하고, 한중간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분위기가 개선되면 바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늘릴 것이라 생각함
 - 그리고 대통령님께서서 남방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중요함
 - CJ는 이미 채널을 아세안 10개국에 진출하였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방송사에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즐거움·행복·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문화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 (CJ) 우리가 제작한 뮤지컬을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
- (방통위) 정부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업에 이쪽 저쪽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 연예인 광고가 풀리고 있고, 대규모 공연은 허용하고 있어 관계 회복이 기대됨
- (CJ)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번 대통령님 방중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풀렸으면 하는 입장임

< 회의 및 견학 사진자료 >



< 회의 사진 >



< 견학 사진 >

2017. 12. 12.(화)

 방송통신위원회	<h1>보도자료</h1>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7년 12월 12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삼석 상임위원실 이기훈 비서관(☎2110-1243, khlee35@korea.kr)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확산 및 중국과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한류 콘텐츠 확산 및 중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3일(수)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고삼석 위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최대 영화·드라마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 중국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이노웨이 등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류 확산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민대학교 총장을 만나 한·중 간 방송분야 학술·학생 교류 및 한·중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씨제이 중국법인을 방문하여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진출 현황 및 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끝.